

노년기 여성의 우울정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 : 진주지역을 대상으로

안 성 아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A Study on the Effect of Depression on the Appearance of Elderly Women

Ahn, Seong-Aha

School of Beauty & Fashion Desig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200. 1.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depression, appearance interest, and appearance adorn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how to examine degree of make-up and visit to a beauty shop was influenced by depress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Subjects were 117 elderly women in their 60's to 70's in Jinju, Korea.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ppearance interest according to 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earance interest, makeup, and visit to a beauty shop according to education. That is, the high level group of education had a high degree of makeup, and a high interest in appearance than the low level group. There was a difference in appearance interest and makeup according to healthy condition. That is, the good healthy group had a high interest of appearance, and the high degree of makeup than the poor healthy group. The degree of makeup had an effect on appearance interest and education ($R^2=.505$). The visit to a beauty shop had an effect depression (-), yes or no of a mate, and allowance ($R^2=.192$).

Key Words : Elderly depression(노인우울), Appearance interest(외모관심), Appearance adornment(외모장식)

I. 서 론

오늘날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령화 현상은 범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보면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7%였으며,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로 전망되고 있다¹⁾. 한편 여성의 평균 수명은 78.6세, 남성은 71.0세로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길며, 고령으로 갈수록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노령화는 건강 및 활동의 저하, 우울증, 소외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을 의미하며, 노인의 1/3가량이 약한 우울증, 10% 이상이 심한 우울증을 보인다고 보고 되고 있다²⁻³⁾. 최근 노인들은 이런 노화에 따른 불편을 이해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생활의 독립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타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발전하였다⁴⁾.

또한 노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⁵⁾ 외모 가꾸기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잘 정돈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된다⁶⁾. 따라서 외모관심이나 신체장식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 상태에 이

*Corresponding author : Ahn, Seong-Aha

E-mail: kjcrn@korea.com

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근심, 침울, 무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상태인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인 변인, 우울, 외모관심, 외모장식 등에 관한 미래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여성의 건강상태와 우울증이 외모관심과 외모장식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외모장식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우울정도에 따른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 우울정도, 외모관심이 외모장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법으로서 노년기 여성 1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범위는 공간적으로 진주 및 진주근교이며, 시간적으로는 2003년 9-10월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과 우울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면서 그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다. 노인이란 용어에는 심신 기능의 쇠퇴인 늙어가는 현상 즉 노화라는 의미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 기계적으로 측정되는 달력상의 나이, 즉 역연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노인이 처해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⁷⁾.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 Birren과 Cunningham⁸⁾은 노인을 생물학적, 사회학적인 면에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의 조직기능이 연령의 증가에 의해 자신의 조절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의 역할과 기질이 감소하며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적응력과 정서적인 변이 변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였다.

노인에 대한 구분은 일정한 연령에 의해서 스스로 자각 하거나 사회적으로 노인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많다. 연령에 의한 노인에 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60-70'세를 젊은 노인으로 '70세 이상'을 늙은

노인으로 구분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노인으로서 자기 개념을 60세 이후로 자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⁹⁻¹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정의하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우울증은 슬픈 감정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고 활동 수준이 떨어지고 비관적이며 자기 비관적인 사고가 심하여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어둡게 보고 사소한 일에도 의사결정을 잘못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¹²⁾. 노인성 우울은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강 문제로서 불안, 신체증상, 정신운동 지체, 높은 자살률, 불면증,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체적 건강상태, 인격과 사회심리적 요소, 생활사건 등이 노인 우울의 원인되고 생활사건 중 질병, 만성적인 장애, 사회적 고립, 사별, 가난 등이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었다¹³⁾.

노년기 우울의 가장 큰 요인은 현재의 질병을 포함한 신체적 건강문제로서 우울은 통증과 같은 신체적 장애와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 등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희망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¹⁴⁾. 객관적으로 외모를 평가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우울증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⁵⁾.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우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우울은 자아 존중감, 건강행위변인과 관련이 있었다¹⁶⁾. 또한 노인의 우울정도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등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건강상태 등과 관련이 있었다¹⁷⁻¹⁸⁾.

이상의 내용에서 우울은 노인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심리적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자아 존중감, 건강변인, 인구통계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외모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 변인, 건강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외모관심과 외모장식

외모는 의복이나 다른 장신구의 유형이나 신체적인 속성 즉 얼굴, 몸 등을 포함한다¹⁹⁾. 그러므로 외모는 신체와 신체에 가해 있는 장신구 모두를 합하여 외모로서 평가되고 인지된다. 즉 외모는 길에 나타난 모습이나 용모로 신체외모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사람의 성별, 인종, 대략의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직업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이다²⁰⁾. 외모는 선천적으로 유전의 형질을 타고난 신체적 모습이 있으며, 이 타고난 신체를 화장이나 머리모양, 의복형태 등으로 꾸미고 가꾸게 된다²¹⁾. 한편 Frügel은 외모장식을 신체적, 외면적인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하였는데²²⁾, 장식의 신체적 형태는 신체의 변형이나 교묘한 처리 등을 포함한다. 외면적 형태는 신체에 부착되는 의복이나 다른 장식품, 장식을 포함한다.

외모관심이란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외모 장식에 대해 갖는 지속적인 흥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장식 행동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노인들의 건강이 양호해 지고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²³⁾에서 노인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참여하며, 타인과 접촉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노인은 외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²⁴⁾, 자아에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노인일수록 외모에 관심이 높았다²⁵⁾. 즉 화장을 하면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계에 따른 역할로서 작용하여 관계의 강화와 사회적 승인을 얻고 만족해 한다. 화장이 가진 심리적 효용으로는 화장자체가 가지는 만족감, 대인적 효용, 마음의 건강 등 3가지 측면이 있다²⁶⁾. 화장은 아름다워지는 일차적인 효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어 풍요로운 마음과 자신감을 갖게 하여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적극적인 활동감을 지니게 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²⁷⁾.

이상의 내용에서 외모장식은 외모를 아름답게 하며 심리적 효용이나 일의 능률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외모관심 및 장식이 노인의 우울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의의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우울정도, 외모장식, 외모관심, 인구 통계적 변인을 조사하였다.

우울정도는 정인과, 광동일, 조숙행, 이현수²⁸⁾가 개발한 30문항의 한국형 노인우울검사를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정서적 불편함, 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관심과 활동저하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정도는 우울의 전체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낮고 신뢰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한 27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α 신뢰도는 .86이었다. 우울의 세 집단은 상부 25%, 하부 25%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였는데, 점수분포 상에서 상부 25%는 우울이 상집단, 중간 25%는 중집단, 하위 25%는 하집단으로 칭하였다. 상, 중, 하 집단의 점수범위는 .19~.37(26.5%)점, .41~.52(47.9%)점, .56~.74(25.6%)점이었다. 측정방법은 예, 아니오의 진위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외모장식은 화장정도와 미용실을 방문하는 정도의 2개 변인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화장정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에 1점, '기초화장'에 2점, '1가지 색조화장'에 3점, '2개의 색조화장'에 4점, '3개 이상의 전체적인 화장'에 5점을 주었다. 미용실 방문정도는 '전혀 가지 않는다'에 1점, '1년에 2번 정도 간다'에 2점, '3~4달에 한번 정도 간다'에 3점, '2달에 한번정도 간다'에 4점, '1달에 1번 정도 간다'에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외모관심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외모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5단계 Likert형으로 각 1개 문항씩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학력, 배우자동거여부, 용돈, 사회계층,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건강상태의 측정문항은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5단계 Likert형으로 1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2. 표집대상,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본 조사는 2003년 9-10월에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진주시 및 진주시 근교에 거주하는 60세~79세까지의 노년기 여성 11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활동이 가능하고 면접에 응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표본의 분포를 보면, 연령은 60대가 62.4%, 70대가 37.6%였으며, 학력은 무학이 22.2%, 한문서당 및 초

등졸이 34.2%, 중졸이 15.4%, 고졸 이상이 26.2%였다. 배우자 여부는 동거가 53.8%, 이혼 혹은 사별이 46.2%였다.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36.8%, 10-15만원 미만이 33.3%, 20만원 이상이 29.9%였다. 건강상태는 5단계로 측정하였으며, 건강이 ‘아주 나쁘다’가 3.4%, ‘나쁘다’가 21.4%, ‘보통이다’가 40.2%, ‘건강하다’가 34.2%, ‘아주 건강하다’가 9%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결과

1)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

연령, 학력, 배우자의 동거여부, 용돈,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화장, 미장원 방문정도의 차이를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외모관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외모관심은 70대 보다 60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이 높을수록 외모관심이 적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보다는 신체적 안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화장, 미장원 방문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학력이 높은 집단이 외모에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고, 화장도 학력이 높은 집단이 화장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미장원 방문정도는 고졸이상의 고학력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한문서당 및 초등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의 동거여부에 따른 우울, 외모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용돈에 따라서는 외모관심, 화장정도, 미장원방문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20만원 이상의 용돈이 가장 많은 집단이 그 이하의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화장을 하는 정도 및 미장원을 방문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원래 5단계로 측정하였는데, <표 1>의 내용에서는 ‘①아주 나쁘다’와 ‘②나쁘다’를 합쳐서 ‘나쁘다’로 하였고, ‘④건강하다’, ‘⑤아주 건강하다’

<표 1>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N=117)

인구 통계적 변인	우울, 외모변인	우울정도	외모관심	외모장식	
				화장	미장원 방문정도
연령	60대	.47	3.01	3.15	3.75
	70대	.45	2.45	2.59	3.41
	t	.97	2.97*	1.91	1.88
학력	무학	.44	1.96(c)	1.62(c)	3.50(ab)
	한문서당 및 초등졸	.47	2.73(b)	2.70(b)	3.33(b)
	중졸	.51	3.33(a)	3.67(a)	3.78(ab)
	고졸 이상	.45	3.33(a)	3.91(a)	4.00(a)
	F	1.55	13.11**	17.04**	3.46*
배우자 동거여부	동거	.47	2.91	3.03	3.73
	이혼 혹은 사별	.46	2.69	2.83	3.50
	t	.42	.69	1.16	1.27
용돈	10만원 미만	.43	2.40(b)	2.37(b)	3.26(b)
	10-15만원 미만	.48	2.74(b)	2.87(b)	3.59(b)
	20만원 이상	.48	3.37(a)	3.74(a)	4.12(a)
	F	2.27	10.40**	8.27**	8.78**
건강상태	나쁘다	.47	2.34(b)	2.07(b)	3.48
	보통	.48	2.83(a)	3.13(a)	3.54
	건강하다	.44	3.10(a)	3.35(a)	3.81
	F	.95	4.98**	6.92**	1.22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의 정도를 합쳐서 '건강하다'의 3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우울정도, 미장원방문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외모관심, 화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은 집단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고, 화장을 하는 정도도 더 높았다.

3) 우울정도에 따른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

우울정도에 따른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살펴보았으나, 우울정도에 따라 외모관심, 화장, 미장원방문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우울정도, 외모관심이 외모장식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들은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인들이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인과관계에 들어갈 독립변인의 독립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2>에서 보면 각 변인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연령은 교육정도, 우울, 외모관심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았고, 외모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용돈, 건강상태, 외모관심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용돈도 많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외모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은 외모관심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용돈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외모관심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2>의 각 변인들은 상관관계성은 있으나 일치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 변인들을 회귀모형의 독립변인으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노년기 여성의 연령, 학력, 배우자 동거여부, 용돈, 건강상태, 우울정도, 외모관심이 외모장식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편 독립변인 중 배우자동거여부는 동거를 1점, 이혼 혹은 사별을 0점으로 하여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3>에서 보면 화장정도는 외모관심과 학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beta=.523/.294), 외모관심이 높고 학력이 높은 노년기 여성일수록 화장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정도에 미치는 설명력을 보았을 때 외모관심 한 개 변인이 화장정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43.8%였고, 외모관심과 학력의 2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50.5%로서 외모관심이 학력보다 화장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117)

변인	연령	교육정도	용돈	건강상태	우울
교육정도	-0.21*				
용돈	-0.15	0.40**			
건강상태	-0.16	0.33**	0.05		
우울	-0.25*	0.05	0.15	-0.11	
외모관심	-0.24*	0.48**	0.38**	0.32**	0.14

*p<.05, **p<.01

<표 3> 외모장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N=117)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	beta	t	Overall F
화장정도	외모관심	.438	.800	.523	6.967**	F=57.74** df=2/113 C=-.269
	학력	.505	.387	.294	3.918**	
미장원 방문정도	용돈	.128	.278	.417	4.779**	F=8.85** df=3/112 C=4.732
	배우자여부	.160	.369	.193	2.240*	
	우울정도	.192	-1.462	-.179	-2.080*	

*p<.05, **p<.01, C=Constant

미장원 방문정도는 우울정도, 배우자 여부, 용돈에 의해 영향을 받아($\beta = .417 / .193 / -.179$), 즉 용돈이 많고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며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미장원을 방문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장원 방문정도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용돈의 한개 변인의 설명력은 12.8%였고, 용돈과 배우자 여부의 2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16.0%였으며, 독립변인 3개에 의한 설명력은 19.2%로 나타나 용돈이 미장원 방문정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논의

이상의 내용에서 노년기 여성의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조사한 것에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수입이 많을수록,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장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고, 계층이 높을수록 외모에 관심이 높고 신체장식이 높다는 선행연구^{29,3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에서는 외모관심과 화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이 보통이거나 건강한 집단이 나쁜 집단보다 외모관심과 화장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이 나쁜 사람의 경우는 외모치장보다는 자신의 신체가 불편하므로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힘들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영숙³¹⁾은 가정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동통, 신체적 의존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인구학적인 변수를 제시하였으며,³²⁾도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신체활동에 참가할수록 우울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정도에 따른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정에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인이 자료수집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회의 경제상황이 나쁜 시기로 60세 초반의 노인인 경우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수와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령, 학력, 배우자동거여부, 용돈, 건강상태, 우울

정도, 외모관심이 외모장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화장정도는 외모관심과 학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외모관심이 높고 학력이 높은 노년기 여성일수록 화장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여성의 화장은 심리적 안정감 및 사회적 관계의 적극성을 증대시키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들며, 자신감을 가지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선행연구³³⁾와 노년기 여성은 연령이 높아도 화장을 하여 정리된 용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니며 용모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³⁴⁾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복지시설에서 노인여성의 메이크업과 외모장식에 대한 실습과 교육으로 노인의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미장원 방문정도는 우울정도, 배우자 여부, 용돈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용돈이 많고,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며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미장원 방문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울, 건강상태는 노인의 외모장식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고 특히 노인의 용돈이나 학력과 같은 경제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인은 노인의 심리상태와 외모변인에 유의한 영향이 있어 노인의 심리 및 외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라 외모관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외모관심은 70대 보다 60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외모관심, 화장, 미장원 방문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화장과 외모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미장원 방문정도는 한문서당 및 초등졸, 무학, 중졸, 고졸 순으로 미장원 방문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의 정도에 따른 외모관심, 화장, 미장원 방문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용돈이 많을수록 외모에 관심이 더 많았고, 화장하는 정도와 미장원 방문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라 외모관심, 화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화장을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정도는 외모관심과 학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R^2=.505$), 외모관심이 높고 학력이 높은 노년기 여성일수록 화장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장원 방문정도는 우울정도, 배우자 여부, 용돈에 의해 영향을 받아($R^2=.192$), 용돈이 많고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며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미장원을 방문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 여성의 학력이 높고, 용돈지출이 많을수록 외모장식을 많이 하고, 연령이 적고 용돈 정도가 많으며,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미장원 방문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여성의 연구대상자가 특정한 지역의 노인여성으로 한정되었으며, 주로 사회활동을 하며 바깥출입이 잦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실제로 우울증이 심하여 사회활동이나 외부출입을 자제하는 노인여성을 조사하지 못하였고, 측정도구를 제작함에 있어 예비조사를 하지 않아 측정도구를 보다 타당성 있게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외모관심과 외모장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통계청 '99 사회지표(2003). 경향신문. 5, 20.
- 윤종률(2003). 노인에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가정의학회지, 24(4), pp. 305-308.
- 노인 65%가 초조성 우울증세(2003). 조선일보. 10, 21.
- Ryan, M. 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pp. 241-317.
- 이명희, 이은실(1997).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pp. 1072-1081.
- 이충순, 한은선, 황태연(1997). 현대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 이원진(2003). 노인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irren, J. E. & Cunningham, W. R.(1989). *Research on Psychology of Aging. i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pp. 3-34.
- 전재일(1979). 노인으로서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 pp.1-23.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Pfeiffer, E., & Davies, C. C(1977). Determinants of sexual behaviour in middle and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 pp. 151-158.
- 대한노인병학회(2000). 노인병학. pp. 779-783.
- 김수영(2001). 쑥향기 흡입을 병행한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통증, 우울 및 자이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ach, T. F. & Pruzinsky, T.(2000). 바디이미지. 임숙자, 이승희, 이미현, 신효정 (역). 서울 : 교문사, pp. 41-57.
- 최영애(2003). 노인들의 우울, 자존감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연구, 21(가을호), pp. 27-47.
- 원정숙, 김정화(2003).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2(2), pp.148-154.
- 곽동일, 최윤경, 정인과 & 이민수(1999). 한국 어느 도시 지역의 치매역학조사서. 노인정신의학, 4(2), pp. 154-163.
- Kaiser, S. B.(1989). 복식사회심리학. 김순심, 유은희, 이유경, 이은숙 역. 서울 : 경춘사, p.6.
- Cach, T. F. & Pruzinsky, T.(2000). 전게서.
- 신효정(2002).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aiser, S. B.(1989). 전게서, p.36.
- Ryan, M. S.(1966). 전게서.
- Hurlock, E. B.(1976). *Development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정희용(1987).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진(2003). 전게서.
- 진중언 외 7인(2002). *화장품과학*. 서울: 정담, p. 263.
- 정인과, 곽동일, 조숙행, 이현수(1997). 한국형 노인우울검사표준화연구. 노인정신의학, 1(1), pp. 62-72.
- 정희용, 임숙자(1988).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pp. 333-342.
- 이충순, 한은선, 황태연(1997). 현대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 박영숙(1999).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4(1), pp. 22-29.
- 김귀봉, 송주호, 박주영 김귀봉, 송주호, 박주영(2000).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가 고독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4), pp. 217-226.
- 이원진(2003). 전게서.
- 이옥희(1985). 노년기 여성의 의복선호와 의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